

## 산협단, “기술이전 수입 30억 원 이상 목표”

##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①

류제원 기자 jennyoo95@khu.ac.kr

2014학년도 우리학교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총 42건, 수입료가 약 20억 9,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. 2013학년도에 비해 계약 건수가 14건 증가하고, 수입료가 약 7억 원 늘어났다. 대학정보공시사이트 ‘대학알리미([www.academyinfo.go.kr](http://www.academyinfo.go.kr))’에 지난달 30일 공개된 내용이다.

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은 ‘연구, 개발(R&D)’을 통해 취득한 특허,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창출하고, 대학 역시 새로운 연구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, 산학협력 중 대표적인 활동이다.

기술이전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산학협력단 측은 “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협업이 잘돼 거둔 성과”라며 “다른 대학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지나해 우리학교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‘HEVC/H.265’가 있다. 이 기술은 전자정보대학의 박광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,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



하는 코딩기술이다.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품질의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어,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 현재 이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로 등록돼 있고, 전 세계 모든 IT 관련 정보 가전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. 이 기술이전을 통해 이미 약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, 향후 20년간 기술사용료를 계

속 받게 될 예정이다.

한편 2014학년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3학년도보다는 증가했지만,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학년도 30억 6,400만원보다는 저조했다.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“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이 부족했던 결과”라고 설명하며 “올해는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을 통해 30억원을 수주하는 것이 목표”라고 밝혔다.

특히 우리학교는 ‘대학 창의적 자

산 실용화 지원 사업'에 선정돼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3년간 지원금을 지원받는다. 올해는 5억 원, 내년에는 10억 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. 산학협력단은 이런 지원금을 토대로 변리사 등 실용화 전담인력을 갖추고, 시제품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. 산학협력단 측은 "향후 연구 진흥을 위한 재투자를 활발히 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“많은 수의 특허 출원보다  
널리 활용되는 것 더 기대”

## 인터뷰 - 박광훈 교수

방누리 기자 superior423@khu.ac.kr

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. 우리학교 연구진의 특허출원 현황은 어떠할까. 국제캠퍼스 연구산학협력처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교내 특허출원 건 수에서 박광훈(컴퓨터공학) 교수가 국내외 64건으로 가장 많았다. '2014년 세계 표준의 날' 근정포장을 수상하기도 한 박 교수는 국제표준화의 선도자 역할에 힘쓰고 있다.

박광훈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멀티미디어, 그 중에서도 동영상 압축하는 기술인 ‘코덱’이다. 그는 MPEG-2, MPEG-4, AVC/H.264를 시작으로, UHD 방송에 사용되는 영상압축표준인 HEVC/H.265에 이르기까지 동영상 코딩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채택시켰다.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TV, 디지털 카메라 등에 탑재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.

박 교수는 최다 특허출원 보유  
자란 말에 “개인적으로는 기분이  
좋다”면서도 “하지만 특허 등록  
과 출원 건수가 많다는 이  
야기보다는 내가 만든  
기술이 전 세계에서  
킬러 애플리케이션  
(Killer Application)  
으로 널리 활용된다  
는 말을 더 듣고 싶다”  
고 말했다.

그가 지금까지 괄목  
할만한 성과를 낼 수  
있었던 동력은 무  
엇일까. 박 교수

는 그 첫 번째 비결을 ‘재미’로 꼽았다. 연구를 하다보면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미있으면 고단함도 잊은 채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. 또한 박 교수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 ‘게임하느라 밤샘 적 있는가’를 묻곤 하는데, ‘며칠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재미를 붙이면 끝까지 가는 사람’이라며 ‘연구자에게는 이런 ‘근성’이 필요하다’고 강조하기도 했다.

또한 박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특별한 방법으로는 “문제가 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 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머릿속에 든 구름만 잡게 될 것”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.

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가 쉬운 길은 아니었다. 하지만 박 교수는 “하고 싶은 것, 흥미 있는 일을 하고 산 덕분에 결과도 좋은 것 같다”고 회상했다. 앞으로의 연구계획도 복잡하지 않다. 그저 “재미있으면 계속 하겠다”고 한다.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온 그의 20년 세월이 느껴졌다. 로프 메르콜레의 ‘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’는 말이

더오르게 하는 박광  
훈 교수의 앞으  
로의 행보가  
기대된다.



강사 강의료 평균 4만 9,950원, 사립대학 평균보다 낮아

##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②

백승철 기자 scho1357@khu.ac.kr

2015학년도 우리학교 '시간당 강사 강의로 평균'이 4만 9,950원이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5만 693원과 비교할 때 약 700원 줄었다.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평균 5만 5,100원 보다는 5,150원 낮았고, 사립대학 평균 5만 600원 보다는 적었다. 대학정보공시사이트 '대학알리미([www.academyinfo.go.kr](http://www.academyinfo.go.kr))'에 지난달 30일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.

기존에 우리학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의 지급기준 단가는 최저 4만 1,000원에서 최고 5만 1,000원으로 총 2가지로 구분됐다.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 2만 550원에서부터 최고 7만 6,500원까지 총 6가지로 세분화됐다.

이중 5만 1,000원을 강의료로 받는 시간강사가 90.1%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지만, 지난해 같은 금액을 강의료로 받은 시간강사가 총 94.8%였던 것과 비교할 때 4.7%p 감소했다. 또한 지난해 강의료로 4만 1,000원을 받던 시간강사가 5.2%, 올해도 5.2%인 반면, 2만

기존	비율	2015학년도 신규	비율
4만 1,000원	5.2%	2만 5,500원	4%
		4만 1,000원	5.2%
		5만원	0.1%
4만 1,000원	94.8%	5만 1,000원	90.1%
		5만 1,500원	0.1%
		7만 6,500원	0.4%

550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4.0%로 새롭게 늘었다. 이런 강의료 세분화의 결과 평균 강의료 역시 줄어든

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.

한편, 시간강사 강의담당비율은 3년 동안 하락세다.

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

미디어센터 | VOU | 대학주보 | 영어신문 | 대학원보 | 동문회보 | 의료원보 | 교황 | Admin

VOU소개 | VOU뉴스 | 오디오방송 | 영상방송 | 특별방송 | VOU커뮤니티

(AD식사) 당신의 마...

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도  
서정가제에 대해 알아보  
았다.

FULL

00:00/00:00

01 02 03 실시간

01 VOU뉴스

02 오디오방송

03 영상방송

04 특별방송

VOU방송국 방송국소개

VOU방송국 부서소개

VOU방송국

• 서울캠퍼스

방/송/시/간

AM : 08:20 ~ 08:55

PM : 12:10 ~ 01:00

PM : 05:35 ~ 06:10

경희교육포럼 개최  
지난 26일 우리학교 교목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  
는 경희교육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.

자연&신청곡

VOU

facebook

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